

# **지역전문센터(Regional Center of Expertise)를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의미와 향후 과제**

성정희(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 **서론**

2002년 12월 제 57차 유엔총회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를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으로 지정 선포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재차 확인되었다. DESD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UNESCO와 UNU(국제연합대학)는 지역전문센터(RCE)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통영RCE가 2005년 10월 처음으로 인증 받아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체제가 모두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본 발표에서는 환경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의 전환의 필요성과 RCE를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1. 환경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의 전환의 필요성**

1972년 스톡홀름에서 ‘오직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다. 스톡홀름선언 이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1973), ‘이주성 야생동물 종 보전에 관한 협약’(1979) 등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향상되었으나, 1980년대 들어서도 대기, 해양오염, 기후변화, 오존층, 산림파괴, 생물 다양성 등의 지구환경문제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또한 생태학적 임계점(환경의 한계용량)에 접근할수록 세계적으로 환경적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그 결과 제3세계의 환경문제가 인간의 생존과 존엄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제사회는 환경문제가 단지 환경에 대한 문제로만 인식되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닫고 환경과 사회·경제적으로 통합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결책을 찾을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환경문제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 틀 안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2.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 ● 정의

일반적으로 ‘현 세대의 삶과 미래 세대의 삶을 개선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교육’으로 정의된다. 즉,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서로 관련된 환경·사회·경제적 쟁점을 이해시킬 뿐 아니라 개인·지역사회·집단·산업계와 정부가 지속가능하게 살고 행동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2004년 발간된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 이행계획 초안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이다.”

### ● 목적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도 아니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을 강조한다. 이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위한 목적 지향적 교육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진정한 학문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에 목표를 둔 것이라기보다는 피교육자의 행동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타 교육 분야와는 다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가치의 변화를 요구하며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며, 이것은 또한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면서 세대내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책임을 중요시한다. 또한 인간 스스로 자연생태계의 일부로서 다른 생명체들과 공동체적 인식을 갖지 않고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생명체들에 대해서도 생명공동체로서의 책임을 가질 것을 강조 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가치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 ● 교육 영역

위와 같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단지 환경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빈곤퇴치, 양성평등, 평화 및 분쟁해결, 타 문화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 등 보다 폭 넓은 주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국제이행계획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요 내용 영역은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환경부문에서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한계성을 인식, 인간의 활동과 의사 결정시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 환경문제와 사회, 경제적 문제의 상호의존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부문에서는 경제성장의 한계 인식,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정의(공평성)를 강조한다. 사회부분은 민주주의, 기회의 공평, 참여, 문화적 다양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 3. RCE를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의미

#### ● RCE란 무엇인가?

제 57차 유엔총회에서 2005년 1월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을 착수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후 이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UNESCO가 선정되었다. UN대학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10개년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RCE'개념을 제안했다.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과 실천이 필수적이므로 지방과 지역차원에서 ESD를 위해 노력하는 여러 파트너간의 강화된 협력을 가능케 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RCE는 지역/지방 차원에서 ESD를 공동으로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 NGO, 기업 등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RCE는 초등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수직적 교육과정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형식교육과 무형식, 비형식교육을 연계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모든 교육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이들의 협력을 결집시키고 이를 교육과 지속 가능한 사회구축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5년 6월 일본의 센다이, 오카야마지역, 캐나다 토론토,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라인-뮤제, 말레이시아 페낭, 태평양의 섬 국가들이 RCE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 10월 세계에서 8번째로 한국에서는 통영RCE가 지정되었다.

#### ● RCE를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의미

RCE는 지역 단위로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하나의 정보망(network)으로 자발적이고, 유연하며,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RCE를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촉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환경,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교육에 참여하게 되어 특히 학교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기 쉽다.

둘째,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각 분야, 전 연령대의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한데 전통적인 교육의 대상인 학생에서 나아가 시민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을 통한 사회전체 구성원들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지역에 근거한 교육으로 인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 될 수 있다.

넷째, 타 RCE와의 협력을 통해 범지구적인 학습공간을 형성하여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을 논의할 수 있다.

다섯째,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교육 영역을 뛰어넘어 사회와 제도의 모든 층면들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명확히 알 수 있다.

#### 4. 통영 RCE의 과제와 전망

일반인뿐만 아니라 교사, 공무원, 각 분야의 전문가들마저도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아직도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와 이행전략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통영 RCE운영에 있어서도 먼저 사회구성원들의 인식향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에 형식, 비형식, 무형식 교육이 모두 협력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대상의 확대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각자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에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식교육 내에서 초, 중등 나아가 대학교육까지 교육체계가 일관성 가질 수 있도록 수직적 연계가 필요하며 나아가 비형식, 무형식교육의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단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형식교육), 다양한 형태의 비형식, 무형식교육이 모두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5. 맺는말

지속가능발전은 환경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관점이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 교육내용에 대한 논의의 부족으로 여전히 환경교육이 지속가능발전교육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교육내용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환경뿐만 아니라 빈곤, 인권, 평화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 교육영역에서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이다. 교육은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로 교육방향이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교육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